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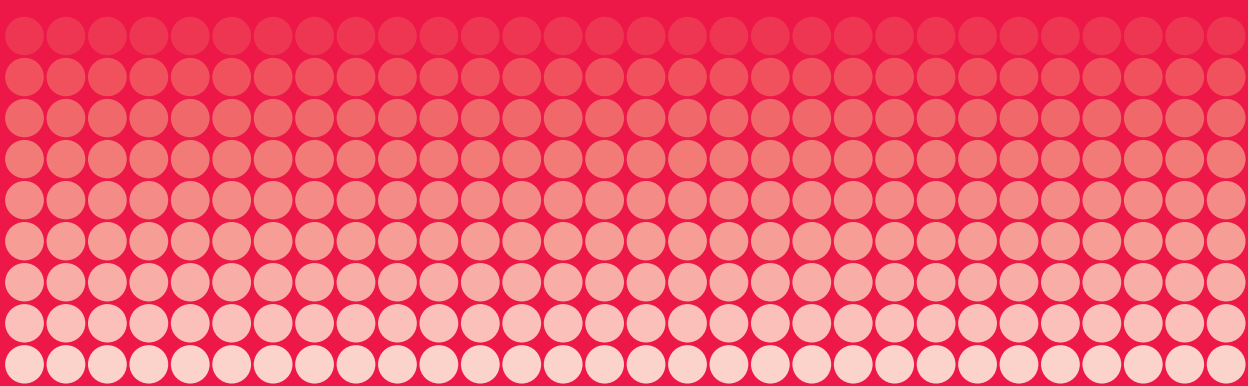
sipri

PEACE
MOMO

SIPRI YEARBOOK 2023

군비, 군축, 국제안보

연감: 한국어 요약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이하 SIPRI)는 분쟁, 무장, 군비통제, 군축에 대한 연구에 전념하는 비정부 민간 연구 기관으로 독립적으로 연구과제를 채택하고 있다. 1966년에 설립되었으며 공개된 자료에 기반한 데이터와 분석, 권고사항 등을 정책결정자, 연구자, 언론 및 관심 있는 대상에게 제공하고 있다.

SIPRI 연감

2023년 SIPRI 연감은 세계 군사비 지출, 국제 무기 이전, 무기 생산, 핵전력, 무력 분쟁 및 다자간 평화 작전과 같은 분야의 원본 데이터와 군비 통제, 평화 및 국제 안보 분야의 주요 부문의 최신 분석을 담았다. 이 보고서는 2023년 SIPRI 연감에 포함된 표본 데이터 및 그 분석을 요약, 제공한다.

목차

1. 소개: 2022년 국제 안정과 인간 안보	1
1부. 무력분쟁 및 분쟁관리, 2022	
2. 무력분쟁 추이	2
3. 다자간 평화활동	4
4. 무력분쟁 속 민간군사보안기업	6
2부. 군사비 지출 및 군비, 2022	
5. 군사비 지출과 무기 생산	8
6. 국제무기이전	10
7. 세계 핵전력	12
3부. 비확산, 군비통제 및 군축, 2022	
8.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방지	14
9. 생화학적 및 보건상의 안보 위협	16
10. 재래식 군비통제와 새로운 무기 기술의 규제	17
11. 우주와 사이버 공간	18
12.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
부록	22



1. 도입

: 2022년 국제 안정과 인간 안보

댄 스미스 DAN SMITH

2021년 말의 국제 안보 지평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국과 미국 간의 대립이 격화되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2021년에는 두 대립 중 어느 것도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2021년의 어떤 위기도 능가하는 파급을 낳아 국제 체제에 충격을 주었다. 그 충격은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러시아의 반복된 경고로 인해 더 커졌다. 서방의 대응은 우크라이나에 군사 원조를 제공하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적용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식량 불안과 지정학적 긴장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기아 문제를 악화시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주요 식량의 주요 생산국이자 수출국이다. 주요 식량의 생산과 무역이 전쟁과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인해 모두 감소했다. 이는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한 세계 식량 가격의 급등과 2017년 이후 세계 기아의 꾸준한 증가 추세에 부담을 주며 발생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부각되었지만, 우크라이나는 2022년에 무력분쟁을 경험한 56개국 중 하나일 뿐이다. 전쟁은 강대국 간 상호관계를 후퇴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세계 정치에서 불화를 키워 국내 갈등 및 지역 갈등과 분쟁을 관리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켰다. 동북아시아는 중국과 미국 및 그 동맹국 사이에 점점 더 긴장과 위험도가 높아지는 관계의 최전선이다. 한 해 동안 90회 이상의 미사일 시험을

실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으로 인해 긴장이 야기되면서 이 지역은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가 2022년 2월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전면전이 발생했다. 러시아군은 민간 목표물을 조직적으로 공격하여 대규모 도시 파괴를 일으켰으며, 유엔이 수집한 증거가 입증되면 수많은 전쟁 범죄를 저질렀음이 밝혀질 것이다. 2022년 말까지 어느 쪽도 승리를 향한 명확한 전망이 없는 상태이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양극을 달리면서 협상된 평화를 향한 명확한 길이 보이지 않았다. 이 전쟁으로 사람들이 받는 고통의 규모에 관한 데이터는 부분적이며 신뢰할 수 없다.

답이 없는 질문

국제 체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흔들리고 있는 지금, 진행 중인 환경 위기와 같이 인류의 공통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의제를 수용할 공간이 현 국제사회에 있을까? 강대국들의 글로벌 리더십 부재 상황을 유엔의 에너지와 방향성이 보완할 수 있을까? 2022년 말 이러한 질문에 답이 없었지만, 동시에 많은 중요한 국제기구가 여전히 공동선을 위해 효과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에 가장 취약한 국가들을 위한 ‘손실 피해’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새로운 합의, 그리고 생물다양성 손실을 막기 위한 새로운 행동 프레임워크 채택은 2022년의 기대되는 성과였다. 이러한 국제적 약속을 이행할 에너지와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은 현재의 국제적 환경에서 특히 어렵다. ●



2. 무력 분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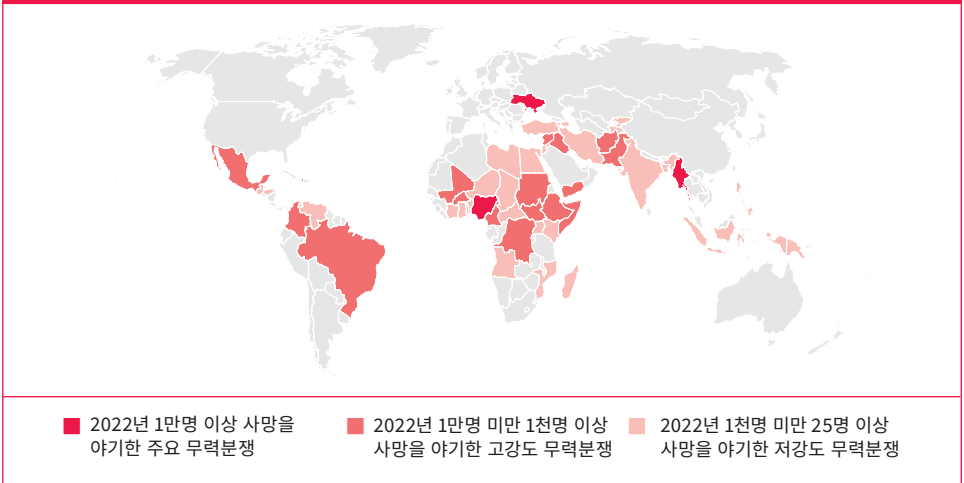
2022년은 전 세계적으로 무력분쟁이 널리 퍼진 해였지만, 관련된 폭력의 종류와 수준은 지역마다 크게 달랐다.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전쟁과 평화에 대한 논의를 지배했지만 이는 2022년 상비군이 개입된 국가 간 전쟁의 유일한 예였다. 유럽 밖에서는 대부분의 전쟁이 계속해서 국가 내에서, 또는 불분명한 국경을 맞댄 국가 집단 내에서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다국적 지하디스트 네트워크와 범죄 조직에서 분리주의 세력과 반란군에 이르는 비국가 무장 단체가 참여했다.

무력분쟁을 경험한 국가는 총 56개국으로 2021년보다 5개 증가했다. 이 무력분쟁 중 세 개(우크라이나, 미얀마, 나이지리아)는 확실히 10,000명 이상의 분쟁 관련 사망자가 포함된 주요 무력분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에티오피아 내전도 이 문턱을 넘었을 가능성이 높다. 확실한 데이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또한 추가로 분쟁 사례 16건은 1,000~9,999명이 사망한 고강도 무력분쟁이었다. 추정된 총 분쟁 관련 사망자 수는 147,609명으로 2021년 수치보다 약간 낮다. 그러나 이 수치는 폭력의 지역적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 아프가니스탄과 예멘의 경우, 지속적이고 심각한 무장 분쟁이 진행 중임에도 사망자 수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기록된 사망자 수는 우크라이나에서 급증했고 미얀마에서는 거의 두 배로 늘었다. 아프리카는 분쟁 관련 사망자가 1,000명 미만인 곳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많은 무력분쟁이 발생한 지역으로 남았다. 2022년, 아프리카에는 두 번의 성공한 쿠데타가 있었고 세 번의 실패한 쿠데타 시도가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제외한 어떤 지역에서도 쿠데타는 발생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식량 및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야기하고 국제 분쟁 해결 메커니즘을 약화시켜 2022년 세계적 불안정을 증가시킬 위협으로 등장했다. 전쟁의 영

2022년 무력분쟁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보증 또는 승인과 무관함.



향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더 작았으나 경제적 불확실성만큼은 많은 지역에서 정치적 불안의 물결을 일으켰다. 2022년은 전 세계적으로 12,000건 이상의 식품 및 연료 관련 시위가 벌어진 해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시위들이 빈번하게 개별적인 폭력 사건들로 이어지긴 했으나 새로운 내전 또는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다.

국제 분쟁 관리

러시아와 서구 열강 대부분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유엔에서 다른 분쟁과 관련된 외교까지 차단하게 하는 상황을 피해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21년과 비슷한 비율로 평화활동, 국제제재 체제, 중재 노력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아프리카니스탄과 아이티, 그리고 마얀마 등 일부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가 새로운 지평을 열기도 했는데, 이는 주요 열강이 유엔 안보리를 여전히 일부 협력을 위한 중요한 행위기관으로 본다는 점을 말해준다. 그러나 안보리와 유엔 시스템은 이미 유엔이 위기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사헬 지역의 지하디스트 폭력 급증, 콩고 민주 공화국의 폭력 증가, 아이티의 법질서 붕괴 등 일련의 사태에 대한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

2022년 유엔은 난관을 헤쳐 나오고 있었다면, 유럽연합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분쟁 관리보다 우크라이나 및 영토 방어에 훨씬 더 집중하였고, 이로 인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이 유럽안보협력기구(OCSE)에서 타협의 여지를 찾는 것이 어려워졌다. 유럽 밖에서는 아프리카연합과 G5-사헬그룹과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를 비롯한 소지역 아프리카 기구들이 대륙에서 발생한 지하디스트 폭력과 쿠데타의 이중 도전

을 대처하느라 고군분투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와 모잠비크에서는 자국군과 다국적군이 지하디스트 집단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다. 동남아시아에서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미얀마 관련 외교가 거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평화협정

2022년 평화조성의 기회들은 제한적이였다. 유엔은 예멘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지속된 휴전을 성사시켰는데, 휴전은 지속적인 폭력 발생에도 불구하고 사망률 감소와 원조 접근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아프리카 국가들과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유엔과 미국으로 구성된 중재자들은 2021년 내내 민·군 간의 혼란이 지속되고 있는 수단, 군부 세력을 압박하여 민간 정부 구성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에 동의하도록 압박을 가했다. 에티오피아 군과 그 동맹국들은 성공적인 군사적 동력을 통해 티그라얀 인민해방전선이 2022년 11월 휴전안을 내도록 만들었고, 이 휴전안은 남아프리카 프리토리아에서 서둘러 체결되었으며 2023년까지 합리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2022년 말, 새로운 좌파 정부가 다수의 무장 단체와 평화 이니셔티브를 추진했지만 12월까지 그렇다할 진전이 만들어지지 못했다. ●



3. 다자간 평화활동

2022년에는 전년 대비 1개 증가한 64개의 다자간 평화활동이 있었다. 2022년에 시작된 5개의 활동은 집단안보조약기구(CSTO)의 카자흐스탄 파견 집단평화유지군; 아프리카연합 소말리아 과도임무단(ATMI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기니비사우 안정화 지원임무단(SSMGB); 동아프리카 공동체 콩고민주공화국 지역군(EACRF-DRC); 아프리카연합 에티오피아 감시 및 검증 준수임무단(AU-MVCM)이다. 2022년에 종료된 4개 활동은 카자흐스탄 파견 CSTO 집단평화유지군; 유럽안보협력기구(OSCE)의 우크라이나 특별 감시단(SMM); 소말리아 파견 아프리카연합 임무단(AMISOM); 그리고 민다나오 파견 국제모니터링팀(IMT)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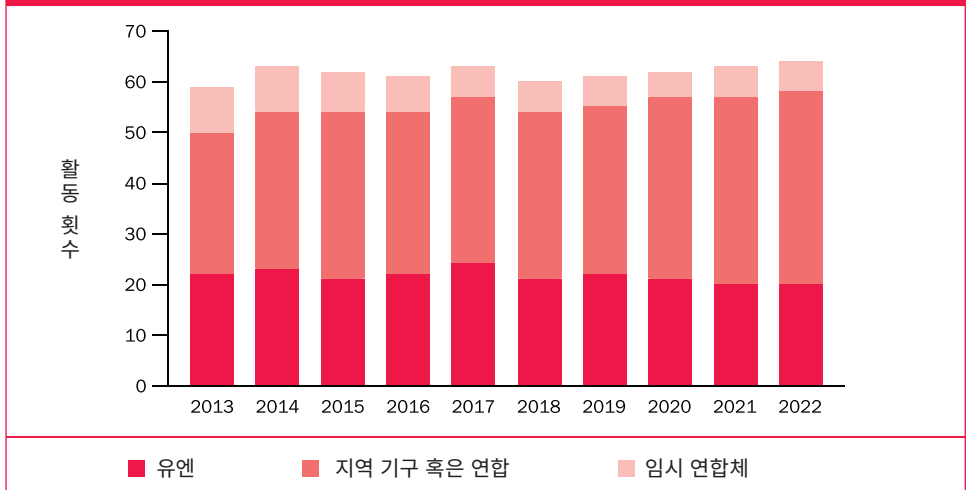
2022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자간 평화활동에 배치된 임무수행자의 수가 증가하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속되었던 감소 추세가 역전되었다. 2022년의 증가는 대부

분 계속 가장 많은 평화활동과 임무수행자를 필요로 하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평화활동 인원 배치 변동을 반영한 것이다. 2022년 5개의 새로운 활동 중 4개가 이 지역에서 개시되었으며 5개 활동은 모두 지역(regional)기구에 의해 시작되었다. 새로 개시된 평화활동들은 평화활동의 지역화가 증대된 점과 민간인보다는 군경 인력 배치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엔 평화활동 사망자

2022년에는 국제 임무수행자 74명(군 53명, 민간인 13명, 경찰 8명)과 현지 직원 27명이 유엔 평화활동 중 사망하여 2021년보다 21명이 감소했다. 2022년 총 사망자 수는 감소했지만, 적대적 행위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21년 24명에서 32명으로 증가했다. 2021년 대비 10명 감소한 2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유엔 말리 다각적 통합 안정화 임무단(MINUSMA)은 2022년에도 가장 높은 치명률을 기록한 평화활동이었다. 이 해 가장

다자간 평화활동 횟수(수행기관 종류별, 2013년-2022년)



다자간 평화활동 실행 횟수 및 파견 인력 수(지역 및 기관 별, 2022년)

수행 기관	미주	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유럽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세계
실행 횟수	3	5	18	14	24	64
유엔	2	2	2	7	7	20
지역 기구 혹은 연합	1	1	13	6	17	38
임시 연합체	0	2	3	1	0	6
파견 인력	306	311	7 567	14 206	92 594	114 984
유엔	279	301	1 013	12 362	66 553	80 508
지역 기구 혹은 연합	27	..	5 431	693	26 041	32 192
임시 연합체	..	10	1 123	1 151	..	2 284

.. = 해당사항 없음.

참고: 2022년 실행된 다자간 평화활동의 수는 해당년도에 실행이 종료된 활동들을 포함함. 파견 인원 숫자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임.

치명적인 사건은 3월에 발생했는데, 콩고민주공화국의 유엔 조직 안정화 임무단(MONUSCO) 소속 헬리콥터가 추락하여 8명의 유엔 평화유지군이 사망한 것이다.

접수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 및 지정학적 경쟁 심화

2022년 콩고민주공화국과 말리에서 유엔 요원이 추방된 사건은 평화활동과 접수국 정부의 관계가 최악에 다다랐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러한 관계 악화는 양국에서 발생한 시위로 인해 심화되었는데, 시위 참여자들은 비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을 폐쇄하라고 요구하였다. 말리와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인권 침해와 허위정보 활동으로 비난 받고 있는 러시아 민간군사보안기업 바그너 그룹(Wagner Group)의 존재로 인해 평화활동과 접수국 사이의 어려운 관계가 더욱 복잡해졌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미 고조되고 있던 지정학적 경쟁, 특히 서방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경쟁을 격화시켰

다. 이는 OSCE의 우크라이나 특별모니터링 임무단의 폐쇄에 영향을 미쳤고 유엔 안보리 내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어렵게 만들었다.●



4. 무력분쟁 속 민간군사보안기업

추이, 주요 행위자, 우려 사항

지난 20년간 민간군사보안기업(PMSC)들은 급속 성장을 이루었다. 이 기업들은 대개 법적 공백(legal lacuna)에서 운영되는데, 이는 PMSC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는 표준 정의가 없기 때문이다. PMSC의 직원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니며, 일반적인 용병으로 정의될 수도 없다. 이라크(2003~11년)와 아프가니스탄(2001~21년) 전쟁은 PMSC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었는데, 이는 미국이 대규모 계약을 발주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창출한 데 따른 것이다. PMSC의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은 지역과 국가에 따라 다르지만, 주로 비용 효율성이 주요 요인이 된다. 국가가 보유하지 않은 민간군사경비 부문이나 국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거나 수행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PMSC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국가적 안보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고객을 위해 작동하고 있다. 이 분야의 주요 행위자에는 PMSC을 유치한 일부 국가와 그 국가에 본부를 둔 기업들이 있다. 미국, 영국,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전체 PMSC 분야의 70%를 유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한 줌의 국가들에 다수의 PMSC가 집중되어 있다. 러시아의 PMSC 분야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지만, 러시아의 중개업자들은 그 어떤 국가보다도 더 많은 전투에 관여하고 있다.

전 세계에는 수천 개의 PMSC가 있고, 대부분은 법을 준수하고 주어진 임무에 한정되어 운영되며 일반적으로 유엔 및 비정부 기구와 긴밀히 협력하여 평화 활동의 환경 안

정화 및 안전에 기여한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분쟁 지역 및 안보 환경에서 몇몇의 유명 PMSC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업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졌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민간군사보안기업

최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개입하고 있는 PMSC의 추이는 이 떠오르는 행위자들이 본사를 두고 있는 조국의 이익을 위해 국가 정책과 지정학적 경쟁의 도구로서 매우 밀접한 공생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PMSC의 초기 흐름은 유럽의 구 식민지 세력이 주도했거나 냉전 시기 대리 경쟁의 일부였지만, 현재는 러시아와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PMSC 활동의 확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 PMSC의 개입이 증가하는 현재 상황은 지정학적 경쟁의 증가와 국제화된 무력분쟁으로 인해 초래되었는데, 천연자원의 추출 및 통제가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

서구의 PMSC들은 아프리카에서 여전히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데, 특히 전투에 직접 들어가지는 않는 위치에서 다양한 대테러 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러시아 PMSC들, 특히 바그너 그룹은, 일반적으로 반군이나 저항세력의 위협을 받는 정부(현재 군사정부 또는 과도기 군사정부)를 위해 군사 활동에 직접 참여하며, 자주 고가의 천연자원이나 광산 채굴권을 대가로 지불받는다. 바그너 그룹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인권 유린 및 국제인도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많은 유엔 보고서나 조사의 초점이 되어왔다.

중국의 PMSC는 더 서서히 더 제한적이고 주변적인 역할을 하는 방식으로 등장했지만, 중국의 투자와 인프라 개발 및 무역 확장과



바그너 그룹

이 러시아 민간군사보안기업은 리비아, 시리아 및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의 여러 분쟁에서 전투 역할에 배치되었다. 우려스러운 점은 핵심적으로 사실상 러시아 국가를 대리한다는 점에 있다. 바그너 그룹의 활동은 인권 침해, 국제인도법 위반, 부당하고 착취적인 계약, 선거 개입과 관련되어 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말리에서만 바그너 그룹과 관련된 아홉 건의 사건으로 450명 이상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 군대와 함께 대규모로 배치되었는데, 다른 분쟁에 참여하던 대원들을 재배치하고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및 시리아 국적의 대원들을 모집하여 배치했다.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는 중국의 이익추구와 PMSC를 포함한 중국의 행위자들의 지속적인 개입과, 천연자원 접근성, 더 넓게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정치적 역학에 대한 더 큰 전략적 영향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

현재의 규제 환경

무력분쟁 및 취약한 환경 속에서 PMSC들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지만, 이 부문을 규제하기 위한 지금까지의 국제적 노력과 규범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규제의 주요 문제 중 하나는, 특히, 러시아와 튀르키예와 같이 PMSC를 무력분쟁의 대리행위자로 사용하는 것이다. 종종 이러한 사용이 용병에 대한 국제법적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 국가들은 대테러 접근법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바그너 그룹을 테러리스트 그룹으로 지정하여 그 지도자들을 제재하는 방식이다. 용병과 PMSC 직원을 형사법으로 책임을 묻

는 경우는 드물다.

유엔의 규제 노력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바그너 그룹의 활동으로 다시 활성화되었다. 이 문제에 관한 유엔의 정부 간 실무그룹은 용병을 다루는 국제법 조항과 몽트뢰(Montreux)문서 및 민간보안업체들(Private Security Providers)의 국제행동강령과 같은 연성 규제 접근 사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내용 합의는 고사하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조차 여전히 어렵다.

2022년 실무그룹 논의에서 몇 가지 주요 문제가 발생했다. 실무그룹 참여국들은 여전히 규제 문서의 구속력 여부에 대해 합의할 수 없었고, 규제의 범위, 인권 조항 및 책임의 영역과 구제책에 대한 합의에 이를 수 없었다. 2023년에도 이 논의가 계속되겠지만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규제를 도출할지는 지켜봐야 한다. ●



5. 군사비 지출과 무기 생산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8년 연속 증가하여 2022년 약 2조 240억 달러에 달했다. SIPRI가 기록해 왔던 수치 중 최고치이다. 지출이 전년 대비 3.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도 세계 경제는 성장했기 때문에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군사비 지출(군사비 부담)은 2.2%에 머물렀다. 세계의 각국 정부는 평균 총 정부 지출의 6.2%, 즉 1인당 282달러를 군사비로 지출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전 세계 및 지역 군사비 지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유럽의 군사비 지출은 대부분의 중부 및 서유럽 국가에서의 지출 증가로 인해 총 13% 증가했다. 일부 국가들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비 지출 국가들이었으며, 이들이 러시아의 침공에 대응하여 군사비 지출을 상당한 증가시킨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일부 국가는 2033년까지 군비를 확충하는 미래성장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전쟁과 그에 따른 유럽의 군사비 지출 증대가 세계 군사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군사비 증가분은 군사 장비의 현대화와 병력 증강에 할당되었다. 일례로, 독일은 국내 총생산(GDP)의 2.0%를 군사비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노력을 계획하고 있다.

중부 유럽과 서유럽, 북미에서 군사 지출이 증가한 또 다른 원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였다. 이 지역 국가들의 대부분은 우크라이나에 재정적 군사 원조를 제공하거나 군사 장비를 보낸 후 부족해진 비축량을 보충하기 위해 군사비 지출을 늘렸다. 우크라이나의 자국 군사비 지출은 일곱 배 이상

2022년 세계 군사비 지출

지역	지출 (US 미화, 단위: 10억)	증감율 (%) 2021-22
아프리카	39.4	-5.3
북아프리카	(19.1)	-3.2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20.3	-7.3
아메리카	961	0.3
중앙아메리카	11.2	-6.2
그리고 카리브해		
북아메리카	904	0.7
남아메리카	46.1	-6.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575	2.7
중앙아시아	1.4	-29
동아시아	397	3.5
오세아니아	35.3	0.5
남아시아	98.3	4.0
동남아시아	43.1	-4.0
유럽	480	13
중부 및 서부유럽	345	3.6
동유럽	135	58
중동	(184)	3.2
세계 총계	2 240	3.7

()=불확실한 추정치;

참고: 현 지출 수치 현재 가격 및 환율로 미화 달러로 표시. 변경 사항은 상수 (2021년), 미국 달러 기준.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가 경제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비중이다. 러시아의 군비 지출 역시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에도 불구하고 9.2%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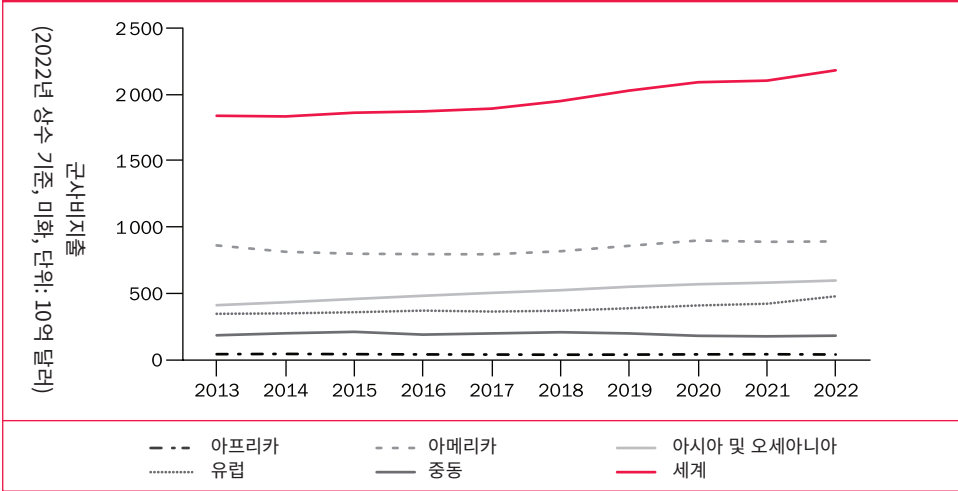
기타 지역의 군사비 지출 패턴

중동의 추정 군사비 지출은 4년 만에 처음으로 3.2% 증가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 16% 증가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출국이자 중동 지역 군사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었다. 중동에서 두 번째로 큰 지출국인 이스라엘의 군사비 지출은 4.2% 감소했다.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지출은 2022년에



2013년-2022년 지역별 군사비 지출



2.7% 증가했다.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군 현대화(military modernization)와 인도와 일본의 지출 증가는 이 지역의 군사비 지출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었다. 일본의 군사비 부담은 3년 연속 1.0%를 넘어섰고 1960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총 안보 지출을 GDP의 2.0%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본 안보 정책의 변화는 특히 중국과 북한과 관련되어 지역적 긴장이 고조된 결과이다. 세계 2위 중국의 군사비 지출은 28년 연속으로 증가해 4.2% 증가를 기록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의 군사비 지출과의 격차를 좁혔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군사비 지출국이지만 예외적으로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상 8.8% 증가가 실질 0.7% 증가로 바뀌었다. 그 결과 미주 지역의 전반적인 군사비 지출은 0.3% 증가에 그쳤다.

군사비 지출이 감소한 유일한 지역은 5.3% 감소를 보인 아프리카였다. 이는 이 지역에서 2018년 이후 첫 감소이자 2003년 이후 최대 규모 감소이다. 이 지역 최대 군사비 지출국

들은 지속적인 안보 문제에도 불구하고 빈약한 경제 성과와 자연재해로 인해 군사비 지출이 감소했다.

SIPRI 선정 탑 100

100대 무기 및 군수기업(SIPRI 기준 상위 100개)의 무기 판매는 2021년에 총 5,920억 달러로 2020년보다 1.9% 증가했으며 2015년 이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데이터를 사용한 최신 평가 시기는 2020년도이다. 이러한 상승세는 코로나 대유행의 지속적인 영향, 특히 공급망 중단, 노동력 부족 및 반도체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졌다. 미국은 40대 기업의 총 무기 판매액이 2,990억 달러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다.●



6. 국제무기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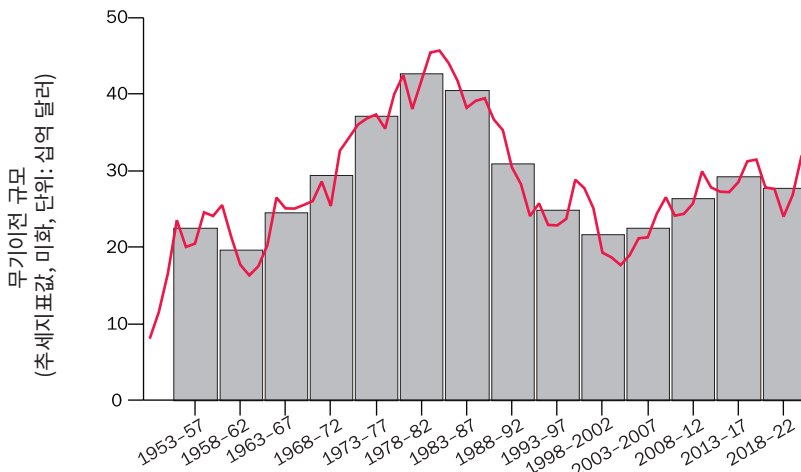
2018~22년 5년 동안 주요 무기의 국제 이전 규모는 2013~17년보다 5.1% 감소했고 2008~12년보다 3.9% 증가했다. 2018~22년의 이전 규모는 냉전 종식 이후 가장 높았지만, 무기이전이 최고조에 달했던 1978~82년과 1983~87년 총량보다는 여전히 35% 정도 적었다. 국가의 무기 획득은 종종 외국 공급자로부터 획득하는 것이며 주로 무력분쟁과 정치적 긴장에 의해 추진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서 긴장이 고조된 것처럼 세계 많은 지역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강력한 징후들로 인해 향후 몇 년 동안 주요 무기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가능성이 높고 그중 대부분은 국제 이전으로 충족될 것이다.

주요 무기 공급업체

SIPRI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63개국을 주요 무기 수출국으로 지정했는데 대부분은 소규모 수출국이다. 25개 최대 공급국이 총 수출량의 98%를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독일 등 5개 최대 공급국이 전체 수출량의 76%를 차지했다.

1950년 이후 미국과 러시아(또는 1992년 이전의 소련)는 지속적으로 가장 큰 무기 공급국이었다. 그러나 2018~22년 미국은 세계 최대의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8~22년 미국의 무기 수출은 2013~17년보다 14% 증가했으며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에서 40%로 증가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러시아의 무기 수출은 31% 감소했고 세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서 16%로 떨어졌다.

주요 무기 이전 추세, 1955-2022



참고: 막대 그래프는 5년 기간 동안 무기이전의 평균 총량을 표시하고 라인 그래프는 연간 합계를 나타냄.



주요 무기 수출입국 (2018-22)

수출국	세계 점유율(%)	수입국	세계 점유율(%)
1 미국	40	1 인도	11
2 러시아	16	2 사우디아라비아	9.6
3 프랑스	11	3 카타르	6.4
4 중국	5.2	4 호주	4.7
5 독일	4.2	5 중국	4.6
6 이탈리아	3.8	6 이집트	4.5
7 영국	3.2	7 대한민국	3.7
8 스페인	2.6	8 파키스탄	3.7
9 대한민국	2.4	9 일본	3.5
10 이스라엘	2.3	10 미국	2.7

알려진 향후 무기 인도 계획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격차가 커질 것이며 몇 년 안에 러시아가 주요 무기 공급국 2위 자리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위 공급국인 프랑스의 무기 수출은 2013~17년과 2018~22년 사이에 44% 증가한 반면 중국과 독일의 수출은 각각 23%와 35% 감소했다.

주요 무기 수입업체

SIPRI는 2018~22년에 167개국을 주요 무기 수입국으로 지정했다. 5대 무기 수입국은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호주, 중국으로 총 무기 수입의 36%를 차지했다. 2018-22년 주요 무기 수입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로 전 세계 총 수입량의 41%를 차지했으며 중동(31%), 유럽(16%), 주(5.8%) 및 아프리카(5.0%)가 뒤를 이었다. 2013-17년과 2018-22년 사이에 유럽으로의 무기 이전(+47%)이 증가한 반면 아프리카(-40%), 아메리카(-21%), 중동(-8.8%) 센트), 아시아와 오세아니아(-7.5%)로의 이전은 감소했다. 167개 수입국 중 다수의 국가는 타국과의 무력분쟁 또는 긴장에 직접 관련되어 있는데 수입 무기는 이에 중요한 역할을

지역별 주요 무기 수입 점유율

수입국 지역	세계 점유율 (%) 2018-22	수입량 증감율 (%) 2013-17~2018-22
아프리카	5.0	-40
아메리카	5.8	-21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41	-7.5
유럽	16	47
중동	31	-8.8

하고 있다. 많은 무기 수출국은 이러한 분쟁과 긴장에 직접적인 당사국이거나 참여국이다. 이는 무기 공급이 무기 공급국의 명시적인 무기 수출정책과 상반되는 상황에서도 공급국이 기꺼이 무기를 공급하는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국가 무기 수출의 금전적 가치

SIPRI의 무기이전 데이터는 이전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무기 수출국들이 자국이 수출한 무기의 경제적 가치를 수치로 환산하여 발표하고 있다.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SIPRI는 2021년 세계 무기거래의 총가치가 2012년 950억 달러(2021년 고정 미화 기준)에 비해 2021년(재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연도)에는 적어도 1,27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21년 세계 무기거래의 총가치는 2021년 세계 국제무역 총액의 약 0.5%였다. ●



7. 세계 핵전력

2023년 초 현재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인도, 파키스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이스라엘 등 9개국이 약 12,512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9,576개는 잠재적 사용가능상태로 비축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중 약 3,844개의 탄두가 작전 부대에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그 가운데 전년도와 동일한 약 2,000개는 고도의 작전 경계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핵무기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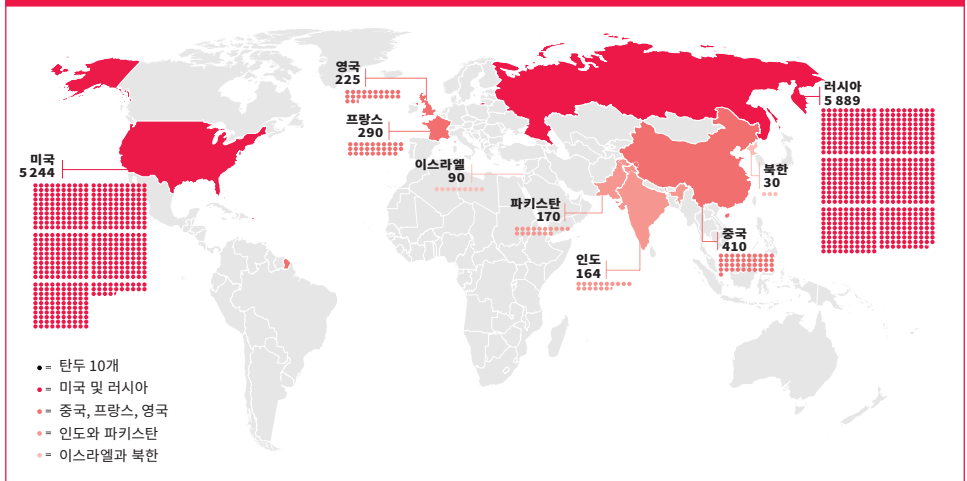
전반적으로 세계의 핵탄두 재고량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주로 미국과 러시아가 퇴역 탄두를 해체했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작전 탄두의 감축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며 작전 탄두의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 미사일, 항공 및 잠수함 전달체계, 핵무기 생산 시설 교체 및 현대화를 위한 고비용 프로그램을 광범

위하게 시행하고 있다.

중국은 핵무기의 상당한 현대화와 확장을 추진하는 중이다. 중국의 핵 비축량은 향후 1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예측에 따르면 이 기간에 적어도 러시아나 미국만큼 많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전체 핵탄두 비축량은 여전히 러시아와 미국 각국 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핵무장 국가들의 경우 핵무기 보유 규모는 훨씬 작지만 모두 새로운 무기 체계를 개발 또는 배치하고 있거나 그렇게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무기 비축 규모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영국도 비축량을 늘릴 계획을 발표했다. 북한의 군사적 핵 프로그램은 국가안보 전략의 핵심으로 유지되고 있고 최대 30개의 핵무기를 조립했을 것이며 이보다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을 것이라 추정된다. 북한은 2022년 한 해 90회 이상의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는 한 해 동안 진행된 횟수 기준

전 세계 핵무기 재고, 2023년 1월



참고: 이 지도에 사용된 국경선은 SIPRI의 동의 또는 승인과 무관함. SIPRI.



2022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현황

핵무기의 원료는 핵분열성 물질로서 고농축 우라늄(HEU) 또는 추출 플루토늄을 사용한다. 중국, 프랑스, 러시아, 파키스탄, 영국, 그리고 미국은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을 핵무기 용도로 생산했다. 인도와 이스라엘은 주로 플루토늄을 생산했다. 북한은 핵무기 제조용 플루토늄을 생산했는데 핵무기용 고농축우라늄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원자력 산업을 보유한 모든 국가가 핵분열 물질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다. 국제핵분열성물질전문가패널 (IPEM)은 전 세계 핵분열성 물질 보유 현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2022년 보유현황(톤)

고농축 우라늄	1 245
무기탑재 불/가능	1 100
직접 사용 불가	
안전조치미비	140
안전조치/ 감시조치	10
추출 플루토늄	
무기탑재 불/가능	550
직접 사용 불가	140
안전조치미비	260
안전조치/ 감시조치	150

참고: 수치는 반올림되어 합계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음.

역대 최고치이다. 이스라엘은 자국의 핵무기 개수와 특징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을 남겨 두는 핵전력 모호성 정책을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낮은 수준의 투명성

핵무기 보유 현황과 핵보유국의 전력에 관한 신뢰할 만한 정보의 여부와 정도는 국가마다 편차가 심하다. 일부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핵분열성 물질(플루토늄 및 고농축 우라늄

세계 핵전력, 2023년 1월 탄두 비축량

국가	탄두 비축량 ^a		
	배치된 탄두 ^b	합계	총 비축량 ^c
미국	1 770	3 708	5 244
러시아	1 674	4 489	5 889
영국	120	225	225
프랑스	280	290	290
중국	-	410	410
인도	-	164	164
파키스탄	-	170	170
북한	-	30	30
이스라엘	-	90	90
합계	3 844	9 576	12 512

=0 또는 무시할 수 있는 값.

참고: 모든 추정치는 근사치이다. SIPRI는 새로운 정보와 이전 평가에 대한 업데이트를 기반으로 매년 세계 핵전력 데이터를 수정한다.

^a ‘탄두 비축량’은 배치된 모든 탄두와 일정 준비 과정 후에 배치될 수 있는 중앙 저장소에 있는 잠재적인 탄두를 의미함.

^b ‘배치된 탄두’는 미사일에 배치되거나 작전 부대가 있는 기지에 배치된 탄두이임. 러시아와 미국의 수치는 2010년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의 집계 규칙으로 인해 협정에 명시된 수치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음.

‘총 비축량’에는 비축된 탄두와 해체를 기다리는 퇴역 탄두가 포함됨.

(HEU)) 생산량과 미사일 부대에 대한 관측에 기반하여 그 국가의 핵전력을 추정한다.●



8. 핵 군비축소 및 군비통제, 핵확산 방지

무기 통제 협정과 약속의 중요성은 2022년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 이사국(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의 공동 성명 ‘핵 전쟁 예방 및 군비 경쟁의 회피’에서 강조되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이들 핵무장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이웃한 비핵무장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자, 이후 핵군비통제를 위한 양자간, 다자간 협의가 상당한 차질을 겪었다. 2022년 말까지 안보리 상임이사국 대화조차 보류되었으며, 협상 과정은 전문가 협의로 제한되었다. 이러한 외교 중단이 역전되지 않으면 핵 군비통제는 더 위험한,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우크라이나 핵 시설에 대한 공격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크라이나 당국,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 핵 시설 관리요원들에게 핵시설의 안전과 보안상 전혀 없는 도전이 되었다. 이 전쟁 이전까지는 운영 상태의 원자력 발전소가 정규군의 포격 또는 미사일 공격을 받거나 군대에 의해 점령당한 적이 없었다. IAEA는 2022년 우크라이나에서 여러 원자력 기술전문가의 임무들을 수행했으며, 이후 우크라이나의 모든 원자력 발전소 총 네 곳에 상주 인력을 배치했다. IAEA는 또한 전시 핵 시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핵 안전 및 안보의 7대 필수 분야’라는 기본 계획을 제시했다.

전략적 안보 대화

2022년 초까지도 러시아와 미국 간의 양자 회담이 계속되었으나 양국은 몇 가지 주

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가 해소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2월의 침공으로 미국은 대화를 중단했고, 그 후 양국 간에는 제한적인 양자 교류만 남게 되었다. 더 넓은 범주에서는 2010년의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의 합의사항과 조약 후속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협상의 이행도 영향을 받았다. 러시아와 미국은 2022년에도 New START의 조항 대부분을 계속 이행했지만, 같은 해 8월, 러시아는 핵무기 관련 시설에 대한 현장 사찰을 재개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미국에 통보했다. 양국 간 전략안보대화의 중단은 2026년 만료되는 New START를 대신할 군비통제체제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 또한 의미한다.

이미 제안되었던 미중간 전략안보대화의 경우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중국은 전제 조건 없는 군비통제 회담에 참여할 의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란과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의 러시아 군사지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 재개를 무색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2021년 4월 비엔나에서 시작된 회담은 2022년에도 해법을 찾지 못한 채 표류했다. 회담은 이란의 과거 핵 활동에 대한 IAEA 조사와 이란 내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더욱 복잡해졌다. JCPOA만큼 효과적으로 이란과 미국의 주요 관심사를 해결할 대안을 찾기는 어렵지만, 양국 모두 JCPOA 재개의 장기적 이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당사국 모두 비용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기꺼이 현상 유지를 선택한 듯 보인다.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에 따른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 공격무기 총합,
2022년 2월 5일 및 2022년 9월 1일 기준**

데이터 범주	조약 제한 ^a	러시아			미국		
		2011년	2022년	변화	2011년	2022년	변화
		2월	9월		2월	9월	
배치된 ICBM, SLBM 및 중폭격기	700	521	540	+19	882	659	-223
배치된 ICBM, SLBM 및 중폭격기의 핵탄두 ^b	1 550	1 537	1 549	+12	1 800	1 420	-380
ICBM, SLBM 및 중폭격기의 배치 및 비배치 발사기	800	865	759	-106	1 124	800	-324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a 조약은 2011년 2월 5일에 발효. 조약 비준 제한은 2018년 2월 5일까지.

^b 순항 미사일을 장착하던 중력 폭탄을 장착하던 각각의 중폭격기는 더 큰 무기 탑재량을 탑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폭격기 1대당 탄두 1개를 운반하는 것으로 집계.

NPT 검토회의

국제사회는 2022년 8월에 개최된 1968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제10차 검토회의에서 합의에 근접한 듯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거의 모든 당사국이 실질적인 결론에 만장일치로 합의할 의향이 있었다. 과거 검토회의에서 걸림돌이 되었거나(예: 1995년 중동 결의안) 이번 회의에서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문제(예: AUKUS로 알려진 2021년 호주, 영국, 미국 간의 3자 안보협약과 NPT와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 간의 관계)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절충안이 만들어졌다. 합의가 성사되지 못한 것은 주로 러시아에 기인한다. 2회에 걸친 연속 검토 회의가 실질적인 결과나 권고 사항에 대한 합의 없이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6년 차기 검토회의에 앞서 NPT의 검토프로세스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핵무기금지조약

핵무기금지조약(TPNW)의 첫 번째 당사국 총회는 몇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당사국들은 과학자문그룹을 설립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선언과 행동계획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행동계획에는 보편적 실행, 피해자 지원, 환경구제와 국제 협력 및 지원, 조약 실행을 위한 과학기술 지원, 광범위 핵군축 및 비확산 체제 지원, 포용성, 조약의 젠더 조항 이행 조치 등 50개의 구체적 조치가 포함되었다. 그러나 핵무장 국가 모두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약의 핵심 목표인 핵 군축이 직면한 도전은 여전히 엄중하다. ●



9. 생화학무기 안보 위협

2022년에도 Covid-19를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널리 확산되었으나 2020~2021년 보다는 훨씬 덜 치명적이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대중 행동에 촉발한 변화는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팬데믹의 기원 논란은 계속해서 정치적으로 분열적인 주제로 작용했고 2022년 말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엠폭스) 발병이 증가하여 2022년 7월 국제적 우려를 요하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가 선언되었다. 2022년에도 팬데믹의 예방, 대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제 조약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었다.

생물무기 군비통제

오랜 시간 러시아가 주장해왔던 서구의 ‘생물 실험실(biolabs)’내 사악한 활동에 대한 캠페인은 2022년에 크게 확산되었다. 이 문제를 두고 2022년 9월, 1972년 생물무기금지협약(BWC)의 제5조에 따른 공식 협의회의가 열렸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여러 차례의 논의가 전개되었다. 그 결과 2022년 10월 러시아의 전례 없는 요청에 따라 ‘우크라이나에서의 군사적 생물학적 활동’에 대한 조사가 제안되었다. 안보리 이사국들은 러시아가 제출한 증거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러시아의 제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2022년 주요 생물무기 군비통제·비확산 활동은 BWC 준비위원회, 유엔총회 제1위원회, BWC 제9차 평가회의와 연계해 추진됐다. 현재의 지정학적 도전, BWC의 오랜 정체와 러시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제9차 평가회의는 2023~26년 회기 간 활동계획 합의와 협

약 강화를 위한 실무그룹 설립 합의 등 완만한 성과를 내며 올해를 마감했다.

화학무기 통제 및 군축

2022년에는 1993년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당사국들 사이에서 화학무기 사용 혐의와 화학무기금지기구(OPCW)내 조사팀 활동과 관련한 문제 등을 둘러싸고 몇 가지 의견 불일치가 있었다. 2022년 시리아 내 화학무기 사용 혐의에 대한 조사는 계속되었고 새로운 화학무기 사용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2014년 이후 진상조사단에서 조사한 총 71건의 사례 중 확인된 사례가 20건으로 증가했다. OPCW는 2022년 말 시리아의 화학무기 프로그램 선언에 대해 ‘여전히 정확하고 완전하다고 간주될 수 없다’고 평가했다.

2022년에는, 시리아 외에도 2020년 러시아 시민 알렉세이 나발니(Alexei Navalny)의 노비축 신경작용제 중독 사례 및 입증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여러 차례의 불법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대한 후속 조치가 있었으나 대체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미국은 아직 폐기되지 않은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CWC의 유일한 당사국이며 일정에 따라 남은 폐기 작업을 2023년 말까지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



10. 재래식 군비통제와 새로운 무기 기술의 규제

유럽의 재래식 군비통제

유럽은 통합적인 재래식 군비통제 제도를 만든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러시아와 유럽 대다수 국가 사이의 지정학적 분열로 인해 이 제도가 붕괴되거나 의미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질되었다. 예를 들어, 2011년 비엔나 합의가 규정한 유럽의 여러 신뢰구축 및 안보 증진 절차로 인해 유럽은 우크라이나 국경 지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비판적 논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을 막지는 못했다. 기존의 재래식 군비통제 제도는 장기적으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유럽의 다른 분쟁들에 대해 실질적인 분쟁 관리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유럽에서 군비통제 지원 요소를 포함하는 새로운 군비통제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은 극히 어려울 것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비인도적인 무기 사용

재래식 군비통제에 대한 현대의 많은 논쟁은 '인도적 군비축소'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그 전쟁에서 사용된 집속탄, 대인지뢰(APMs) 및 인공밀집지역 폭발물(EWIPA)의 사용으로 인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인도적 군비축소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공격들은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인도적 군축 조약 및 규범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무기를 사용한 것과 관련한 국제적인 비난을 불러일으켰다.

자율무기 체계

2017년부터 정부간 전문가그룹이 자율무기 체계(AWS)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해왔다. 2022년 협의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율무기 체계를 관리하기 위한 '규범 및 운영 프레임워크'를 더 발전시킬 것과 그 발전 방향의 하나로서 다음과 같은 이중 접근 - 특정 자율무기 체계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다른 모든 자율무기 체계의 개발 및 사용에 한도를 규정하는 접근 - 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소수의 국가들은 이러한 접근 방식에도 계속 반대하고 있다.

비인도적 무기의 규제

비인도적 무기로 간주되는 무기를 유지, 개발 또는 사용하기로 선택한 소수의 국가들은 비인도적 무기를 규제하는 주요 다자간 조약에 반복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조약의 강화를 위한 협의를 중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네 가지 진전이 있었다. 첫째, 아일랜드가 주도한 별도의 프로세스 덕분에 2022년 11월 83개 국가가 인구밀집지역 폭발물(EWIPA)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채택했다. 둘째, 유엔 총회는 2022년 12월 '무력분쟁과 관련된 환경 보호 원칙'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셋째, 2022년 6월 미국은 대인지뢰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여 대인지뢰의 이전, 개발, 생산 및 보유를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넷째, 관련 국가들이 기술 발전이 소형무기 및 경량무기(SALW) 제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기로 합의했고, 소형무기 및 경량무기(SALW)의 젠더 관련 영향을 연속해서 인정했으며, 탄약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프레임워크 개발 작업을 시작했다. ●



11. 우주와 사이버 공간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우주 관리 체계와 기타 중요 인프라가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우주 공간과 사이버 공간의 합류와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상용위성통신 회사의 지상 단말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유럽 전역에 파급 효과를 일으켰다. 국방부와 군대와 같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핵심 부서를 겨냥한 사이버 공격도 발생했다. 또한 농업, 금융 및 정보 기술 부문의 조직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이 감행되었으며 우크라이나 통신 네트워크 및 전력 시설을 중단시키기도 했다.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전쟁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 공격과 국경을 넘어 군사 및 민간 부문 양측에 영향을 미친 공격의 사례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국제 우주 공간 및 사이버 거버넌스가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문제들에 방점을 찍었다.

우주-사이버 공간 넥서스에 대한 이러한 공격은 필수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마비시키거나 영구적으로 불능화시킨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의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우주 공간 및 사이버 공간의 거버넌스를 위한 다자간 포럼에서는 국가 책무성을 명확히 하면서 민간인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의 필요성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우주 거버넌스

유엔 총회에서 대다수 국가들이 파괴적, 잔해 생성적, 직접발사 위성요격미사일(DA-ASAT) 실험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성공적으로 채택한 것은 우주 거버넌스에 새로운 조

우주-사이버 공간 넥서스

우주와 사이버 공간의 영역 간 중첩(우주-사이버 공간 넥서스)의 문제는 최소한 세 가지의 핵심 측면이 있다. 첫째, 첫째, 사이버 공격의 범위는 우주 시스템, 특히 데이터 전송에 의존하는 디지털 구성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두 영역 모두 공격의 출처와 국가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에서 국제 거버넌스 상 유사한 문제를 공유한다. 셋째, 국제인도법을 포함한 국제법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 영역 모두에 적용되지만 두 체계는 많은 경우 이중용도(민간 및 군사적 기능 모두 충족)이고 여러 국가에 의해 이용되기 때문에, 이런 두 체계를 법에 합치되도록 만드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치를 도입하는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다. 파괴적인 DA-ASAT 실험은 유엔 총회 1, 2차 회기에서 채택된 총회 결의안 76/231호에 의해 소집된 우주 위협 감소 개방형실무그룹(OEWG)이 논의했던 우주 위협 중 하나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서 계속되고 있는 적대 행위와 우주 거버넌스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견들 때문에 다자간 협의를 통해 향후 통제조치에 합의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간 거버넌스

‘2021-2025 정보통신기술 보안 및 사용’ 제2기 개방형 실무그룹은 어려운 지정학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거버넌스와 관련한 협의를 지속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현 실무그룹의 임기 종료 이후에 영구적이고 포괄적이며 행동 지향적인 메커니즘을 지속하기 위한 실행프로그램을 제안을 환영하였다.



그렇지만 이 제안은 기업 부문 및 비정부단체의 공식 회의의 참여자격 여부 등 여러 쟁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분쟁 이전부터 현재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정부 및 비정부 행위자들이 수행한 것으로 추정되는 민간 주요 인프라에 대한 지속적인 사이버 공격은 유엔 협의에 의해 공식화된 자발적 규범 준수 이행이 어렵다는 것을 입증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버 공간 규범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메커니즘이 휴지기에 들어섰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다. 제2차 OEWG에서는 연락처 디렉토리 개발을 포함하는 사이버 역량 및 신뢰 구축 조치가 확립되었다. 또한 사이버 범죄자 체포를 위한 국제 치안 협력은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도 발전하고 있다. 2022년 랜섬웨어 대응 국제정상회담에서는 사이버 전쟁 및 사이버 범죄 목적에 활용되고 있는 랜섬웨어에 대한 행동계획을 수립했다. 미국 정부가 유럽 국가의 사이버 공격 대응을 돕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에 폭스블레이드(FoxBlade) 악성소프트웨어의 코드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에서 볼 수 있듯 업계와의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비국가행위자의 규제적 역할

사이버 공간에서 정부가 민간 부문과 협력하게 되었다는 것은 상업적 행위자들이 군사 활동 지원에 점점 더 많이 참여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군사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용 우주 자산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러시아 정부의 성명은 우주 및 사이버 공간에 대한 거버넌스 분야의 잠재적 확장과 영향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

사이버 공격에 사용되는 악성코드의 종류

백도어

백도어는 시스템의 보안 메커니즘을 우회하여 컴퓨터 시스템 또는 암호화된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한다.

랜섬웨어

랜섬웨어는 비용(“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데이터를 게시하거나 해당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영구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위협한다.

트로이 목마

트로이 목마는 합법적인 프로그램으로 위장한 악성코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한다.

와이퍼

와이퍼는 연결된 드라이브에서 사용자 데이터 및 파티션 정보를 삭제하여 시스템을 작동 및 복구할 수 없게 만든다.

나 비국가 행위자의 우주 및 사이버 공간을 관리하는 유엔 협의과정 참여를 반대하는 일부 국가의 입장은 정부와 민간 부문의 규범 생성뿐 아니라 시행에도 장기적인 도전과제가 되고 있다. ●



12. 이중용도 및 무기거래통제

2022년에도 재래식 무기와 생화학 무기, 핵 무기 및 그 전달체계와 관련된 이중용도 거래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적, 다자간, 지역적 노력은 계속되었다. 그러나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수출 조치 공조 분야에서 국가들이 취해왔던 노력을 훼손하는 등 큰 영향을 미쳤다.

무기거래조약

2022년 8월, 2013 무기거래조약(ATT) 제8차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적 후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전용정보 교환포럼(Diversion Information Exchange Forum)을 처음으로 소집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당사국들의 보고 수준은 감소했으며, 당사국 수의 느리지만 꾸준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당사국 수 격차가 상당한데, 특히 아시아와 중동 국가들의 참여가 저조하다.

다자간 무기금수조치

2022년 동안 유엔 무기금수조치 14개, 유럽 연합(EU) 무기금수조치 22개, 그리고 아랍 연맹 무기금수조치 1개가 시행되었다. 중국이 처음에 제안한 아이티에 대한 유엔의 부분적 무기금수조치는 2022년의 유일한 새로운 다자간 무기금수조치였으며 2018년 이후 첫 번째 유엔 무기금수조치였다. 2022년 유엔 무기금수조치의 해제 및 연장 결정에 대한 국제적 합의의 수준은 주요 서방 강대국과 중국, 러시아 및 같은 생각을 가진 몇몇의 아프리카 국가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퇴보하였다. 이 퇴보는 유엔의 무기금수조치를 받고 있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몇몇 국가 정부군에게까지 무기이전 통지 및 승인

다자간 무기 금수 조치, 2022

유엔(14개 무기금수조치)

· 아프가니스탄(NGF, 탈레반)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NGF) · 아이티(NGF) · 이란(부분적) · 이라크(NGF) · ISIL(다에시),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 및 단체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NGF) · 소말리아(부분적; NGF) · 남수단 · 수단(다르푸르)(부분적) · 예멘(NGF)

유럽 연합(22개 무기금수조치)

유엔 금수 조치의 이행(11개):

· 아프가니스탄(NGF, 탈레반) · 중앙아프리카 공화국(부분적; NGF) · 콩고민주공화국(부분적; NGF) · 아이티(NGF) · 이라크(NGF) · ISIL(다에시), 알카에다 및 관련 개인 및 단체 · 북한 · 레바논(NGF) · 리비아(부분적; NGF) · 소말리아(부분적; NGF) · 예멘(NGF)

유엔 대응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한 유럽연합의 무기금수조치(3개):

· 이란 · 남수단 · 수단

유엔 조치와 별도로인 무기금수조치(8개):

· 벨라루스 · 중국 · 이집트 · 미얀마 · 러시아 · 시리아 · 베네수엘라 · 짐바브웨

아랍 연맹(1개 무기금수조치)

· 시리아

ISIL = 이라크와 레반트의 이슬람 국가;
NGF = 비정부 세력; 부분적 = 금수조치는 특정 조건이 충족된 경우 대상 국가 정부로의 무기이전을 허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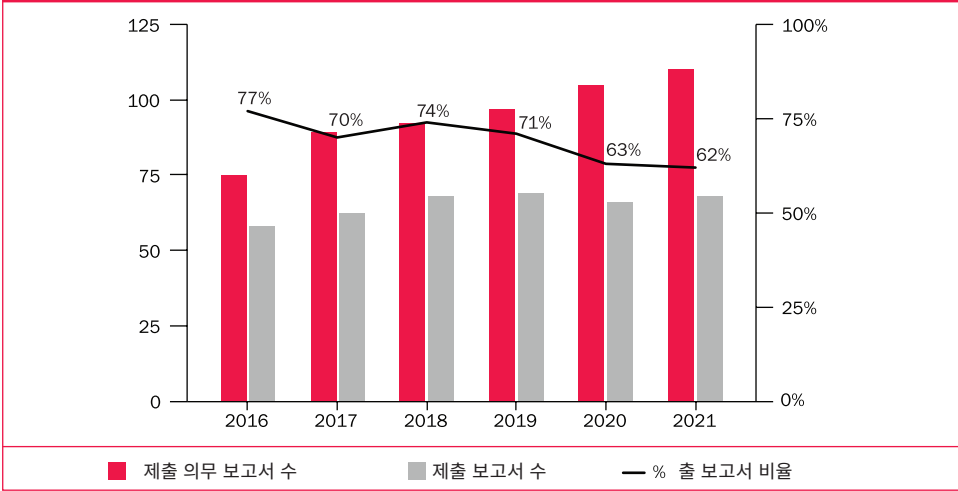
체계를 적용하고자 논의하던 과정에서 분명하게 드러났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무역 제한

유럽연합은 미국 및 10개의 동류 국가들과 함께 당사국들의 국내 수출 통제 시스템을 활용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안보에 초점을 둔 무역제한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탈냉전



무기거래조약 가입국이 제출한 2016-2021년 연간보고서



기간 동안 산업화된 주요 국가에 부과된 조치 중 가장 광범위하고 강력한 조치였다. 이 제한 조치가 러시아 방위산업의 무기 부품 및 구성품 조달 흐름에 제약을 초래한 것은 확실하나 러시아가 해당 조치의 당사국이 아닌 다른 국가로부터 제한 품목의 많은 부분을 조달했다는 징후들이 있어 이 조치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수출 통제 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네 가지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인 호주 그룹(AG: 화학 및 생물학 무기), 미사일기술통제 체제(MTCR), 원자력공급국그룹(NSG), 재래식무기 및 이중용도 물품과 기술통제에 대한 바세나르체제(WA)의 업무가 큰 영향을 받았지만 각각 받은 영향의 성격과 정도는 상이하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모든 통제체제는 대면 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기 시작했으며, 경험과 좋은 사례들을 나누고, 각 체제별로 통제

목록의 소수 변경사항들을 채택하고 기술적 심의를 지속하였다.

유럽연합의 통제

유럽연합은 그들의 단일시장에서 네 가지 수출 통제 체제를 실행하기 위해 이중용도 품목,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수출과 일부 군사 품목의 수출, 중개, 운송 및 환적에 대한 공동의 법적 근거를 확립했다. 2022년, 유럽연합은 2021년에 발효된 새로운 이중용도규제안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고,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규정을 시행하고자 진행했던 과정들에 대해 보고했으며, 2021년에 설립된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nology Council) 활동을 통해 미국과의 조정을 지속적으로 확장했다. 또한, 유럽연합은 공동입장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으며 유럽평화기금(European Peace Facility)가 자금을 지원하는 군수물자의 수출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군비통제 및 군비축소에 관한 현행 협정
(2023년 1월 1일 기준)**

- 1925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 가스 및 세균학적 물질의 전시사용금지에 관한 의정서 (1925 제네바의정서)
- 1948 집단살해범죄 방지 및 처벌에 대한 조약 (제노사이드조약)
- 1949 전시 민간인 보호에 대한 제네바 협약 (제 4차 제네바협약); 1977 국제적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 1, 2의정서가 제4차 제네바협약에 추가
- 1959 남극조약
- 1963 대기권·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부분적 핵실험 금지조약, PTBT)
- 1967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우주조약)
- 1967 라틴아메리카의 핵무기금지에 관한 조약 (토라테로르코조약)
- 1968 핵무기 비확산에 대한 조약 (핵비확산조약, NPT)
- 1971 핵무기 및 기타 대량 파괴무기의 해저, 해상 및 그 하층토에 있어서의 설치금지에 관한 조약 (해저비핵화조약)
- 1972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의 금지와 그 폐기에 관한 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 BWC)
- 1974 지하핵실험제한조약 (TTBT)
- 1976 평화적 목적의 지하 핵폭발에 관한 조약 (PNET)
- 1977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의 금지에 관한 협약 (ENMOD협약)
- 1980 핵물질물리적방호협약
- 1981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특정재래식무기 금지협약, CCW협약, 혹은 '비인도적 무기'에 관한 조약)
- 1985 남태평양비핵지대조약(라로통가조약)
- 1987 중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중거리핵전력조약 / INF조약)
- 1990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CFE조약)
- 1992 항공자유화조약
- 1993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사용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화학무기금지조약, CWC)
- 1995 동남아비핵지대조약 (방콕조약)
- 1996 아프리카비핵지대조약 (펠린다바조약)
- 1996 세부지역군비통제협정 (플로렌스협정)
- 1997 화기, 탄약, 폭발물 및 기타 관련 자재의 불법 제조 및 밀거래에 대한 미주 간 협약 (CIFTA)
- 1997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이전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 (대인지뢰금지협약 / APM 협약)
- 1999 재래식무기 인수의 투명성에 관한 미주 간 협약
- 2001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지역 내 화기, 탄약 및 기타 관련 자재의 통제에 관한 의정서
- 2004 아프리카 대호수 지역 및 아프리카의 빨지역 내 소형무기의 방지, 통제, 축소에 관한 나이로비 의정서
- 2006 소형무기 및 탄약, 기타 관련 자재에 관한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COWAS) 협약
- 2006 중앙아시아 비핵지대화 조약 (세미팔라틴스크조약)
- 2008 확산탄금지협약
- 2010 신전략무기감축조약 (New START)
- 2010 소형무기 및 탄약, 그것의 제조, 수리 및 조립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부품 통제에 관한 중앙아프리카 협약 (킨샤사 협약)
- 2011 신뢰안보구축조치에 관한 2011년 비엔나문서
- 2013 무기거래조약 (ATT)
- 2017 핵무기금지조약 (TPNW)



미효력 협정(2023년 1월 1일)

1996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CTBT)

1999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개정

안보 협력 기구

2022년에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다. 러시아는 유럽 평의회에서 추방되었다, 가봉과 통가가 영연방의 회원이 되었다. 세인트키츠 네비스와 통가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회원국이 되었다. 부르키나파소가 군사 쿠데타로 인해 아프리카연합에서 유예되었다. ●

2022년 주요 사건 연대기

- 1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개 상임이사국(P5)이 핵전쟁 예방 필요성에 대한 공동 성명을 발표함.
-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함.
- 3월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으로부터 군대를 철수한다고 발표.
- 4월 2일. 후티반군과 국제적으로 인정된 예멘 정부 사이의 유엔 중재 휴전이 합의됨.
- 5월 23일. 미국이 다른 13개국과 함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를 시작함.
- 6월 27-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신전략개념과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국 초대에 합의함.
- 7월 22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합의함.
- 8월 17일. 중국, 최소 138개 시와 현에 최고수준의 폭염 경보 발령.
- 9월 26일. 러시아 가스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노드스트림 파이프라인이 덴마크와 스웨덴 해역에서 폭발로 인해 파괴됨.
- 10월 6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아마겟돈'이 올 것이라 경고함.
- 11월 2일. 에티오피아 정부와 티그라야 지도자들이 2년간의 내전을 끝내는 평화협정에 서명함.
- 12월 13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 4개 원전에서의 '원자력 안전·보안 전문가 상주'를 동의함.



SIPRI 데이터베이스

SIPRI 군사비 지출 데이터베이스

1949년 이래 국가들의 연간 군사비 지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별 군사비 지출액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국가별 통화 금액을 US 달러로 일정하게 환산하고, 국내총생산(GDP)에서의 비중을 제공한다.

SIPRI 무기 산업 데이터베이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기를 판매하는 100개 회사들의 총 수익과 무기 판매 및 군사 용역을 통한 업체별 수익 정보를 제공한다. 중국 기업에 대한 정보는 2015년부터 포함되고 있다.

SIPRI 무기이전 데이터베이스

1950년 이후 주요 국제적 재래식무기이전에 대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가장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SIPRI 무기금수조치 데이터베이스

유럽연합, 유엔, 또는 국가간 조직과 같은 국제기구에 의해 시행된 모든 무기금수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거나 1998년부터 시행되어온 모든 금수조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SIPRI 국가보고서 데이터베이스

무기 수출에 관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모든 국가 보고서의 링크를 제공하며, 새롭게 발간되는 국가 보고서의 링크들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SIPRI 다자간 평화활동 데이터베이스

2000년 이후 실시된 모든 유엔 및 비유엔 평화활동에 대한 정보 (위치, 배치 및 활동 기간, 수행과제, 참여국가, 수행인원, 비용, 사망자수 등)를 제공한다.

SIPRI 데이터베이스는 SIPRI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



2023 시프리 연감 구매하는 방법

2023 시프리 연감: 군비, 군축, 국제안보(영문)

옥스포드대학 출판부 온/오프라인 출판

ISBN 978-0-19-889072-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www.sipriyearbook.org에서 확인 가능함.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gnalistgatan 9
SE-169 72 Solna, Sweden
Telephone: +46 8 655 97 00
Email: sipri@sipri.org
Internet: www.sipri.org

번역: 이대훈, 김한민영, 조영미

검토: 문아영, 김가연

출판: 더슬래시

디자인: 소행성디자인



SIPRI YEARBOOK 2023

군비, 군축, 국제안보

SIPRI 연감은 군비, 군축, 국제안보에 관한 권위 있고 독립적인 정보와 분석을 제공한다. 본 책자는 국제안보, 무기 및 기술, 군비 지출, 무기 생산 및 무기 거래, 무력 분쟁 및 분쟁 관리뿐 아니라 재래식 무기, 핵무기, 화학 무기 및 생물학 무기 통제 노력에 대한 개괄적 정세를 담고 있다.

본 책자는 2022년 정세를 다룬 SIPRI 연감 제54호를 요약한 자료이며, 다음을 포함한다.

- 무력 분쟁 및 분쟁 관리, 평화 활동 및 평화 프로세스, 민간군사보안기업의 역할에 초점을 둔 무력 분쟁의 글로벌 및 지역 동향 개요
-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이 유럽의 군사비 지출과 군비 통제에 미친 영향 및 러시아에 국제 무역 제한 조치를 부과하려는 노력
- 군비 지출, 국제 무기 이전, 무기 생산 동향
- 세계 핵전력, 9개 핵무장국 각각의 핵 현대화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 분석
- 핵무기 통제, 러시아와 미국의 전략적 대화 및 핵 군비 통제 및 군축 다자조약 관련 동향, 우크라이나 핵발전소 공격에 대한 반응
- 러시아-미국 전략의 발전을 특징으로 하는 핵 군비 통제 대화와 다자간 핵군축 및 군축 조약, 그리고 우크라이나 원자력 발전소 공격에 대한 대응
- 화학적, 생물학적, 보건 안보 위협, 생화학 무기 사용 및 생화학 전쟁에 반대하는 국제법적 방안 개발 및 생화학 무기 사용 혐의에 대한 조사
- 재래식 무기 통제 및 신무기 기술 규제, 비인도적인 무기 및 인도주의적 우려가 있는 기타 재래식 무기, 자율무기체계 규제 노력
- 이종 용도 및 무기거래 통제, 무기거래조약 동향, 다자간 무기 금수 조치 및 수출 통제 체제 및 통제를 위해 유럽 연합의 법적 체계

이 외에도 군비통제 및 군축 협정, 국제안보협력기구 목록 및 2022년 주요 사건 목록을 수록하고 있음.